

“가해자-피해자 분리 안 돼”...신변보호 여전히 ‘미흡’

광주 ‘경찰 안전조치’ 요청 증가세
피해 여성들 대상 보복범죄 잇따라
스마트 워치 등 제도 실효성 의문
위치 파악 어려워 상황 대처 힘들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인 등 보복범죄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 워치’의 경우 실내에서는 가해자의 위치 파악이 어렵고, 돌발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탓에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기

에다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된 ‘범죄피해자의 위험 등급’ 역시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광주지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승인은 1,68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6건, 2019년 391건, 2020년 415건, 2021년 6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법제화된 것이 안전조치 요청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 또는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및 신고·목적·진족 등은 요청 시 일정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변보호 제도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해 제도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위험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안전조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과거 교제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피의자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도 60대 남성이 동거하다 헤어진 40대 여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다. 40대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용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밀착감시가 미흡한 탓에 강력범죄 등 돌발상황을 대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호대상의 위치확인 및 긴급신고를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 워치 또한 실내에선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 워치 착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광주지역 5개 경찰서가 보유한 스마트 워치는 총 112대로 이중 절반 가량만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찰의 안전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가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금처럼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

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탓에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경찰에 통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는 “현재 제도적으로 사건 발생 전에는 경찰이 가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직접 신고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해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경보를 울리는 등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면서 “올해 안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워치가 보급될 예정이며 앞으로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피꼬리의 모정 여름철새 피꼬리 어미가 최근 화순군 백야면에서 이소를 앞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동지로 날아오고 있다. 피꼬리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새 중에서 삼국사기에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黃鳥歌)와 조용필의 히트곡 ‘못찾겠다 피꼬리’에도 등장하는 노란털과 붉은 부리를 가진 아름답고 친근한 새다. /김태규 기자

시민단체, 외국인 과잉진압 경찰 인권위에 진정

경찰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

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달라고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요청했다.

앞서 광산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부엌칼을 들고 활보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는데 불응하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장봉에 손을 맞아 A씨가 이미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으로 재차 가격하고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현장 폐쇄 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윤영봉 기자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58)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당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형(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 모씨(29),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 모씨(48)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 모씨(60)에게는 징역 7년, 현산안전부장 김 모씨(58)와 공무부장 노 모씨(54),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엔지 현장소장 김 모씨(50)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환준 기자

오늘 무더위 속 최고 40mm 소나기

광주·전남 폭염특보 유지

광주·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최고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은 화순·광양·구례·곡성 33도, 광주·나주·장성·담양·순천·강진 32도, 영광·함평·무안·영암·완도·해남 31도 등을 기록하겠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전 지역에는 폭염특

보가 내려져 있다. 특히 광주·담양·나주·화순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예측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무더운 날씨 속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도 내리겠다.

이날 정오부터 자정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에 5~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지역도 있겠다.

/임재민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안/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흔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아모라이온

브라+슈트+거울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라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울+레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트, 루디아

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